

## 태국 국가입법의회 의장 ‘예비선거 운용은 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’

2018 년 8 월 21 일

태국 국가입법의회 의장은 예비선거 운용은 새 선거 위원회의 책임이라 선거관련 기본법을 개정하면 로드맵에 영향을 미칠지 그 법안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.

윗싸누 크어암 법안 부총리와 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첫 단계 선거 즉 예비선거에 대한 협상 후에 태국국가입법의회 의장 폰펫 위춧출라차이는 이에 대한 법안이 입법의회에서 통과되어 관련 기구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라 자기가 의견을 없다고 말했다. 하지만 법안 개정은 입법회의원의 권리라서 개정 제기할지 아닐지 알 수 없다. 또한 전에 법을 수정하는 제안은 한 입법회의의원 단체의 의견만 이었다.

폰펫 의장 어떤 당이 앞서 선거날을 못 이루어질 걱정에는 예비선거 법안을 개정하라는 소리가 나오지만 자기 개인 의견에 따르면 예비선거의 원칙은 각 선거구에서 국민이 자기 원하는 대표를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면 입법회의의원이 선거 기본법의 통과 시킨 목적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. 선거구가 어떻게 나눌지 지금 아직 자세히 알아보지 않더라도 선거구가 지역으로 나누면 그 법의 원칙을 따라하는 것 같다고 제시했다.

입법의회 의장은 예비선거가 선거날에 맞지 않는 걱정에 의해 자기 생각이 헌법의 상원의원 선출 규정에 관련 기본법 나와 90 일 후에 발효하는 기간에는 예비선거 포함했다고 의견이 났다. 관련자가 반대하여 이 법안을 개정 요구하면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이나 법안을 정부에서 입법의회로 보내거나 일반 절차를 따라 수정 제시해야 한다. 입법의회는 예비선거 법안을 직접으로 개정하지 않다고 확정했다. 개인으로는 이를 해결나가기 바란다고 하여 입법의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선거 업무를 간섭할 생각이 없다. 또한 법을 시행하는 역할이 정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리라서 입법의회가 간섭할 수도 없다.

예비선거법을 개정할다면 로드맵에 영향을 미칠지 의문에는 폰펫 입법회의의장이 이 개정은 법안의 주제를 영향이 미치면개정하는 기구가 입법의회이며 여론조사 및 헌법 2017 제 77 조 규제 영향 평가에 따라 의사절차를 통과를 받아야 한다. 만약에 국가평화유지위원회의 임시헌법 44 조를 이용하여 법을 개정하려면 입법의회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제시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77 여론조사는 시간 많이 걸어서 정한 시간 안에 못 끝나면 다 같이 해결나가야 한다고 폰펫이 말했다. 만약 그 법이 입법의회 손으로 돌아와서 개정해야 하면 선거 로드맵에 영향을 미칠지 그 법안의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으며 로드맵에 영향 안 미칠 수도 있다.

태국 하원의원 사무처 국회 방송국

낫타폴 싸우언쌈/기자

위짚따 나왓타나파이불/편집

태국 하원의원 사무처 외국어 지원사무국 일본어•한국어과

완위몬 마우탐/번역